성숙한 신앙 공동체의 심리적 토대는 무엇일까?

고유식 교수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목회상담학과



지난 1년간 나는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심리적 양상들을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살펴봤다. 갈등의 용광로가 되어버린 교회, 성과주의에 매몰된 교회, 열등감과 우월감이 뒤엉킨 교회, 봉사를 회피하는 교인들의 심리, 봉사로 헌신하다 에너지가 전부 소진되어버린 교인들의 상태, 권위 앞에서 침묵하는 교인들의 숨은 마음, 거룩한 언어 뒤에 숨겨진 질투심, 그리고 분열로 갈라서는 공동체 심리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이를 해결해 보려는 의지로 글을 써 내려갔다. 이 과정에서 어떤 독자들은 '이렇게까지 교회 공동체 내 부정적인 면을 들춰내야 했을까'라며 불편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 연재를 통해 내가 진심을 다해 하려고 했던 말은 결코 교회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다. 사실은 그 반대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대부분은 '신앙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마음의 작동 방식, 곧 심리를 잘 몰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심리를 잘 이해할 수만 있다면 교회는 다시 본래 모습인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음을 글을 통해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

이제 연재를 마무리하면서 독자들에게,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려 한다. "'건강한 교회'란 대체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걸까?" 우리는 흔히 출석 교인 수도 많고 재정적으로 풍요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는 교회를 소위 '건강한 교회'라 한다. 그러나 그런 외적 지표들이 정말 교회의 건강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진정 '건강한 교회'의 기준은 무엇일까?

건강한 신앙은 '사랑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독일 정신분석가이자 사회심리학자였던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그의 저서 『사랑의 기술(Die Kunst des Liebens)』에서 '사랑은 감정이 아닌 기술이며, 본능이 아닌 학습의 결과'라는 매우 도발적인 명제를 제시한다. 우리는 흔히 '사랑은 자연발생적인 것', '사랑은 운명처럼 빠지는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프롬은 이러한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사랑은 마치 음악이나 의학을 학습하듯 의식적 훈련과 노력을 통해 '익혀가는 것'이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랑하는 사람의 성숙도와 직결된다고 프롬은 이해했다.

이 통찰은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장 핵심에 두는 공동체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라'는 말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사랑하려는 마음을 더 가져야 한다', '사랑하려는 의지를 더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프롬의 눈으로 보면, 사랑이 잘 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의 부족'이 아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이다. 그리고 그 능력은 단순한 결심으로 생기지 않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성숙해질 때 비로소 갖춰진다.

프롬은 성숙한 사랑의 네 가지 요소를 '돌봄(care), 책임(responsibility), 존중(respect), 이해(knowledge)'로 정의한다. 이 가운데 '존중'의 어원은 라틴어 respicere(다시 본다)로, 누군가를 존중함은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시 바라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적지 않게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신앙인의 모습', 곧 내가 생각하는 신앙인의 기준에 맞춰 평가해 왔다. '저 사람이 좀 더 헌신적이었더라면', '저 사람이 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다면', '저 사람이 지금보다 좀 더 성숙했다면'과 같은 '내 기대' 안에 상대를 가둬두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실망과 비난을 쏟아낸다. 이는 곧 사랑이 아닌, 사랑을 가장한 통제고 협박이다.

한 권사님이 했던 고백이 떠오른다. "저는 평생을 교회에서 봉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제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름 헌신한다고 했는데, 정작 사랑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헌신과 사랑, 봉사와 사랑은 분명 다르다. 헌신과 봉사는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지만, 사랑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의 문제다. 권사님의 고백은 사실 한국교회 전체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봐야 할 질문이기도 하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사랑할 수 없다

그렇다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향상될까? 프롬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이기심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오히려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약함과 결핍을 견디지 못하기에 끊임없이 외부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아 방황한다. 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조차 따뜻하게 품고, 그 여유로부터 타인을 향한 진정한 관심이 생겨난다.

정신분석가 하인즈 코헛(Heinz Kohut)은 인간 존재란 평생 자신을 이해해 주고 인정해 주며 공감해 주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건강한 자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형적 내재화(transmuting internalization)'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인간은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충분히 이해받고 공감받는 경험을 반복하면, 그 경험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어느 순간 '내 안의 위로하는 목소리'가 형성된다. 즉 처음에는 외부의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지만, 그러한 경험이 충분히 누적되면 외부의 위로자가 곁에 없는 상황에서도 '내 안에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독일 수 있는 내적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부모의 품에서만 안정을 찾다가, 자라면서 부모가 곁에 없어도 마음속에 '안전한 부모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진정시킬 수 있게 되는 과정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더 쉽다.

이 '변형적 내재화'는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성숙한 신앙인은 매 순간 외부의 인정과 위로를 갈구하지 않는다. 그는 평생 받아온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들이 마음속에 내재화되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신다'는 내적 확신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변형적 내재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신앙인은 외부에서 끊임없이 신앙적 확증을 갈구한다. 더 큰 은혜의 체험, 더 강렬한 영적 감동, 더 분명한 응답의 표징이 있어야 하며, 만약 없으면 그 즉시 불

안해진다.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인정, 직분, 봉사의 성과, 다른 교인들의 칭찬의 형태로 외부의 채움을 끊임없이 요구하게 만든다.

한 청년부 목회자가 들려준 이야기다. 청년부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녀는 매번 큰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제가 이번에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라고 고백했다. 그러나 한두 달이 지나면 여지없이 다시 바뀌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또 다른 집회를 찾아다니는 일을 반복했다. 목회자는 그녀의 신앙이 진짜가 아니라고 의심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녀의 신앙이 '외부에서 끊임없이 채워주어야만 유지되는 형태'라는 사실에 안타까움이 컸을 뿐이다. 즉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하나님 경험의 변형적 내재화'가 충분히 일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건강한 교회는 교인들이 외적인 자극에 의존하지 않고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내적 구조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이는 단지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라는 권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이해받고 공감이 이뤄지는 경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정죄당하지 않고 수용되는 경험, 신앙의 의심과 흔들림조차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이 누적될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과 공동체의 따뜻함을 내재화한 자기'가 형성된다. 그 자기는 외부의 위협과 위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사랑은 결국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

물론 자기 자신과의 관계 회복,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회복 모두 건강한 교회가 이뤄지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단지 개인 차원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 결국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라는 공동체 차원으로 관계 회복의 개념이 확장되어야 한다. 바로 이때 오스트리아의 개인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의 '공동체감(Gemeinschaftsgefühl)' 개념이 필요하다.

아들러는 인간의 정신건강을 판가름하는 가장 핵심적 기준을 '나는 더 큰 전체의 일부이며, 그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에서 찾았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안위와 성취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결국 깊은 공허에 시달린다. 반면 자신이 더 큰 공동체의 일원이며 그 공동체의 안녕에 자신이 기여하고 있다는 감각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상 속에서도 의미와 충만함을 경험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들러가 이 개념을 '사회적 관심'의 영역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이다. 그에게 공동체감은 단순히 '내가 속한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모임'을 향한 애착이 아니다. 이는 '이웃', '낯선 사람', '약자', 더 나아가 '인류 전체'와 '생명 전체'를 향한 따뜻한 관심으로 확장되었다. 아들러의 이러한 비전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과 유사하게 이해된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감을 가진 교회일까? 먼저 건강한 교회는 '우리 교회'라는 경계 안에 갇히지 않는다. 자신이 속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만을 추구하는 교회, 다른 교회와의 비교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감이 결여된 교회다. 진정 건강한 교회는 자신을 '더 큰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인식하면서,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세상의 고통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는다.

또한 건강한 교회는 교회 안에서 가장 약한 자가 가장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동체다. 신앙적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 헌신할 여력이 부족한 사람, 상처가 많아 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다른 교인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등 이러한 사람들이 비판받지 않고 환영받을 때, 그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성을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헌신을 보이는 사람만 환영받는 교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교회'는 외형적으로 활기차 보여도 공동체성 측면에서는 매우 부족하고 빈약한 교회다.

그리고 '기여할 수 있는 자리'를 모든 교인에게 열어두는 교회가 진정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다. 아들러는 인간이 공동체감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기여의 경험'에 있다고 보았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경험, 자신의 작은 행동이 공

동체 전체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킨 경험은 한 사람의 정신건강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킨다. 건강한 교회는 큰 직분과 화려한 봉사뿐 아니라 작고 소소한 기여, 즉 소외된 자에게 따뜻한 안부를 묻는 일,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일 등이 모두 동등하게 가치 있는 일로 인정받는 교회다.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의 교회: 디트리히 본회퍼가 가리키는 자리

지금까지 '사랑할 줄 아는 능력',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내적 구조', '공동체감 회복' 등의 언급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의 조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이 하나로 모이는 개념이 있다. 바로 성숙한 신앙은 결코 '내 안의 평안'과 '내 안의 충만'으로 귀결되지 않고, 반드시 타자를 향해 자기를 여는 방향으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나치 치하 베를린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에서 매우 당연하지만 냉철한 한마디 말을 남긴다. '교회는 오직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다(Kirche ist nur Kirche, wenn sie für andere da ist).' 이 문장 안에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진단과 처방이 함께 담겨 있다. 즉 교회가 자기 자신의 보존과 확장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교회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가치는 자기 안에 있지 않고 자기 밖에 있으며, 자기를 위한 자리가 아닌 '타자를 위한 자리'에 서 있을 때에만 비로소 선명해진다.

본회퍼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타자를 위한 존재(der Mensch für andere)'로 정의한다.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자신을 위한 자리가 아닌 타자를 위한 자리에 머무는 삶이었으며, 십자가는 그 '타자를 위함'의 가장 극단적이고 완전한 표현이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름은 신학적 명제를 옳게 고백하는 일을 넘어, 자신의 삶의 자리를 '타자를 위한 자리'로 이동시키는 실존적 결단을 의미한다.

이는 교회 공동체의 심리적 구조에 깊은 영향을 준다. 교회는 종종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교회의 성장', '우리 교회의 안정'을 추구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 그러나 본회퍼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 보존과 자기 확장에 매몰된 교회는 아무리 외형이 화려해도 본질을 상실한 교회다.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는 교회 울타리 밖에서 신음하는 이웃들의 자리, 사회의 약자들이 머무는 자리, 세상의 고통이 가장 짙게 드리운 자리다.

이러한 본회퍼의 통찰은 앞서 등장한 프롬, 코헛, 아들러의 통찰과 깊이 연결된다. 프롬이 말한 '성숙한 사랑'은 결국 자기를 넘어 타자를 향해 흘러가는 사랑이며, 코헛이 말한 '변형적 내재화'를 이룬 사람은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기에 타자를 진정으로 돌볼 여유를 갖는다. 아들러가 말한 '공동체감'은 '우리'라는 경계를 넘어 '이웃'과 '인류'를 향해 확장되는 관심이다. 그리고 본회퍼는 이 모든 흐름의 끝에서, '자기 안에 갇힌 신앙은 신앙이 아니며, 자기 안에 갇힌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며 신앙적 언어로 동일한 진리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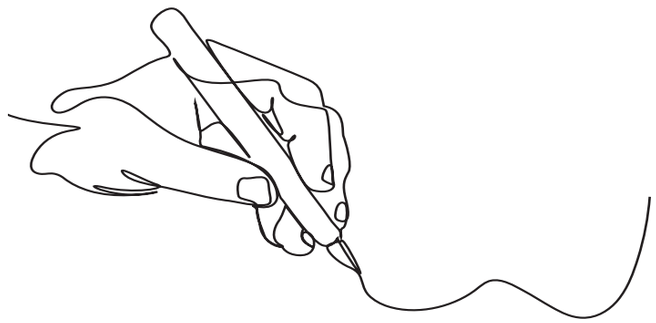
여기서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무시하거나 소진시키라는 의미가 아니다. 사실 그 반대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진정으로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자기 안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이용'할 뿐이다. 봉사와 헌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행위들이 실은 자기 결핍의 보상 행위에 불과한 경우를 나는 6월호 글인 "교회에서 가장 헌신하던 사람이 지치는 이유: 봉사자의 번아웃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심리"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회퍼가 말하는 '타자를 위한 존재'는 프롬과 코헛과 아들러가 그 토대를 닦아 놓은 '자기 자신과 화해한 성숙한 자기' 위에서만 비로소 가능해진다. 자기를 잃은 헌신이 아닌, 자기를 깊이 알고 자기와 화해한 자가 자유롭게 자기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본회퍼가 말한 '타자를 위한 존재'의 진정한 모습이다.

성숙한 교회의 심리적 구조는 결국 이 한 가지 질문으로 모인다. 교회 안의 결정과 선택과 정책과 사역의 방향이 '자신을 위한 것인가, 타자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살아 있는 교회는 결코 자기 안에 갇히지

쓰고 뱉다

라이즈

김정주 대표
글쓰기 모임 〈쓰고뱉다〉
『안녕, 신앙생활』, 『그래서 기도』 저자



않으며, 세상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빛이 되기를 멈추지 않는다.

다시, 교회를 교회답게, 아름답고 멋지게 하는 것

무엇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가? 큰 예배당인가, 많은 교인인가, 풍성한 재정인가, 활발한 프로그램 사역인가? 이 모든 것이 교회를 더욱 빛나도록 하는 도구가 될 수는 있다. 그런데 교회가 되게 하는 본질일 수는 없다.

교회를 진정 교회 되게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성숙'이다. 자기 안의 그림자와 정직하게 마주할 줄 아는 성숙, 자신의 부족함조차 따뜻하게 품을 줄 아는 성숙, 타인을 자기 기대의 틀에 가두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성숙,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넘어 타자를 향해 자기를 여는 성숙. 이러한 마음의 성숙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자라날 때 교회는 비로소 '건강한 영적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 간다.

1년 동안 쓴 글을 통해 가장 절실하게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신앙의 성숙과 심리의 성숙은 결코 분리된 두 개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의 신앙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자기 안의 결핍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은 거룩한 언어로 자신의 욕망을 포장한다. 자기 안에 갇힌 신앙은 결코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 자기 안의 그림자를 정직하게 품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위에서 자기를 넘어 타자를 향해 흘러갈 줄 아는 사람의 신앙은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된다.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마음의 성숙을 격려하고 서로를 도우며, 그 성숙의 에너지를 다시 세상의 어두운 자리로 보내는 장소다. 본회퍼가 옥중에서 꿈꿨던 교회, 프롬과 코헛과 아들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가리켰던 '건강한 인간 공동체'의 비전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거기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다면, 한국교회는 분명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 그것은 큰 부흥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깊어지고, 그 깊어진 마음이 밖을 향해 조용히 열려가는 작은 움직임들을 통해 오게 될 것이다.(연재를 마칩니다.)